

CJ제일제당, 냉동밥·냉동면 매출 1000억 돌파

“끼니 때 맞춰 먹어야 하나요? 언제든 간편하고 맛있게”

냉동밥·면 매출 전년비 30% 성장
내년 함께 매출 1300억대 목표
“제품라인업 확대 시장 키울 것”

CJ제일제당 비비고 냉동밥과 냉동면이 언제든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탈(脫)삼시세끼’ 트렌드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냉동밥과 냉동면이 ‘집밥족’ 증가와 함께 지난해 전년 대비 30% 가량 성장한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CJ제일제당이 발표한 올해 식문화 트렌드에 따르면 가정 내 체류시간이 늘면서 삼시세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점심’ 등 유동적인 식사 상황에



비비고 냉동밥·냉동면 제품

/CJ제일제당

서 냉동밥과 냉동면은 재료나 반찬 준비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한끼 맛있게 챙길 수 있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소위 ‘시간약자’에게는 제격인 제품이다.

실제 CJ제일제당이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냉동밥은 ‘밥 하기 귀찮을 때’ ‘간단한 식사

로’ ‘밥할 시간이 없을 때’ 등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자녀 가구의 구입 빈도가 높았는데 밥, 야채, 계란, 김 등을 추가해 양이나 맛의 맞춤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혔다. 냉동면의 경우 탱글탱글한 면발과 풍성한 건더기, 진한 육수 등 전문점 수준 면 요리를 집에

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냉동밥 시장은 닐슨 코리아 기준 2017년 825억원, 2018년 915억원으로 커지다가 2019년 888억원 규모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집밥족’ 증가와 신(新)제형 신제품 ‘비비고 주먹밥’ 3종의 활약으로 1091억원 규모로 반등했다. 냉동면 시장은 2018년 11월 CJ제일제당 진출 후 꾸준히 확대 중인데, 특히 ‘비비고 잡채’와 ‘비비고 칼국수’가 매출 확대와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비비고 냉동밥 신제품 3종을 내놓았다. ‘비비고 베이컨김치볶음밥’, ‘비비고 매콤부추고기볶음밥’, ‘비비고 간장버터장조림볶음밥’ 등 소비자 취식

빈도가 높은 메뉴들이다.

냉동면은 신제품 ‘비비고 시원바지락 칼국수’를 중심으로 인지도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바지락 해감 등 재료 준비 번거로움 없이 가성비 높은 전문점 칼국수를 즐길 수 있어 소비자 호응이 높다.

CJ제일제당은 올해 비비고 냉동밥과 냉동면 함께 매출을 1300억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냉동밥과 냉동면은 별다른 반찬 없이 단품으로 즐길 수 있어 ‘집밥’이나 ‘한끼 대용식’으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의 맛과 품질을 토대로 메뉴를 늘려나가며 소비자 가정의 ‘필수템’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이베이코리아, 中 中 中 수출 원스톱 지원

‘eGS’ 공식 홈페이지 오픈
운임·공지 등 주요정보 일괄 확인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수출 지원 사업 ‘CBT(크로스 보더 트레이드)’를 이끄는 이베이코리아가 전세계 통합 배송 시스템 ‘eGS’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eGS(이베이코리아 글로벌 시핑)는 이베이코리아가 국내 이커머스 최초로 중소 판매자들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론칭한 서비스다. 이베이코리아는 높은 배송 퀄리티를 갖춘 배송사들과 직접 운임 계약을 맺고 eGS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운임 혜택을 제공한다. 또, 링크스 및 바론손과 같은 분야별 전문 운영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베이 주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배송까지 가능한 원스톱 톨을 제공한다.

‘eGS 스탠다드’ 이용 시 우체국의 국제 배송 서비스인 ‘K-패킷’보다 평균



25% 더 저렴하고, ‘eGS 익스프레스’는 국제특급우편(EMS)보다 평균 45% 저렴하다. 스탠다드는 미국과 호주를 비롯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29개국) 등 32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배송 서비스이며, 익스프레스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특송 서비스다.

eGS 공식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판매 고객들은 서비스 소개, 운임, 주요 공지 등 모든 주요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국가별 세관 정

보, eGS 활용 팁 등 판매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특히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던 문의 채널을 한 곳으로 통일, 보다 간편한 문의 접수와 신속한 답변 확인이 가능해졌다. 판매자 톨에서 국내 택배 픽업신청과 수출신고 번호 등록도 가능하다. eGS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내 택배 픽업서비스 신청양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eGS가 특별 제휴 가격으로 신청 접수 후 익일 픽업을 진행한다. 또한 수출신고 접수가 완료된 상품의 신고번호를 등록해두면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스탠다드’ 전 지역 운임료를 1000원 할인한다(셀러당 100만원 한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베이코리아 eGS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위메프, 롯데백화점 전용관 오픈

롯데백 공식물 120만개 상품 판매

위메프가 갤러리아백화점에 이어 국내 최대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전용관을 오픈, 프리미엄 상품 확대에 나선다.

위메프는 롯데백화점 공식물에서 판매 중인 120만 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롯데백화점 전용관’을 그랜드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소비자들은 위메프에서 PC와 모바일로 편하게 롯데백화점

에 입점한 패션, 잡화는 물론 유아동, 식품, 명품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2일 갤러리아백화점의 특화된 브랜드 상품 40여만 개를 갖춘 갤러리아백화점 전용관을 오픈했다. 가방·의류·잡화, 주얼리, 시계부터 화장품, 유아용품, 수입 가구, 골프용품 등 갤러리아백화점이 엄선한 인기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젝시믹스, 출근복 가능한 레깅스 출시

시그니처 360N 부츠컷 팬츠 선보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가 워슬러저 레깅스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부츠컷 팬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워슬러저는 일(워크)과 휴식(레저)의 경계가 허물어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선보인 신개념 레깅스는 퇴근 후 운동이나 야외 활동 등 운동을 즐기는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이 담겼다.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부츠컷 팬츠’는 종아리 아래부터 발목까지 와이드하게 퍼지는 디자인으로, 다리 선이 부각되지 않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준

다.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입고 벗기 수월하다. 재킷이나 힙라인을 살짝 덮는 스웨터·셔츠와 같이 입으면 활동적이면서도 깔끔한 오피스룩을 연출할 수 있고 후드, 집업자켓, 티셔츠 등을 매칭하면 홈웨어·캠핑웨어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블랙, 애쉬우드, 에보니그레이, 오토그레이 등 광택이 없는 기본 컬러 위주로 구성됐다.

포말한 디자인임에도 레깅스 특유의 기능을 놓치지 않았다. 탄력이 뛰어난 시크릿 원사를 사용, 몸매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힙라인에 V라인 절개선을 넣어 자연스러운 힙업 연출이 가능하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11번가, 바로고에 250억 투자

신주 인수 통해 7.2% 지분 획득
전략적 협업 통해 배송서비스 강화

11번가가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 스타트업 (주)바로고에 250억원을 투자해 배송서비스를 강화한다.

11번가는 22일 공시를 통해 바로고의 제3자 배정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 약 250억 원 규모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신주 인수를 통해 약 7.2%의 바로고 지분을 획득하게 된다.

바로고는 국내 이륜 배달대행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업체로 전국 1000여개의 허브(지사), 5만4000여명의 등록 라이더, 10만여명의 등록 삼점주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고의 지난해 거래액(바로고가 배달한 상품 가격의 총합)은 2조9165억원으로 전년(1조960억원) 대비 166% 증가했다.

11번가는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바로고의 탄탄한 근거리 물류망과 도심 거점 물류 등 신사업 경쟁력에 기반해 11번가가 고객에게 차별화된 배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올해 거래액 성장과 함께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와의 제휴 확대 ▲당일 배송 등 배송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몰리스 매장서 ‘쓱라이브’

이마트, 시코르, 트레이더스에 이어 몰리스도 라이브 방송에 뜬다.

SSG(쓱)닷컴은 23일 밤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마트 성수점 내 ‘몰리스’ 매장에서 라이브커머스 쓱라이브(SSG.LIVE)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SG닷컴은 이번 방송에서 반려동물 전문 오프라인 매장인 ‘몰리스’를 소개하고 간식, 사료 등 인기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몰리스 성수점 마스코트 강아지 자이언트 푸들 ‘틸슨’이 직접 출연, 간식 ‘떡방’을 진행해 눈길을 끌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간식, 사료, 유모차,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 상품 7종을 소개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푸드 파스퇴르

국산 검은콩 100% 두유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국산콩으로 만든 바른두유 검은콩 고칼슘(사진)’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제품의 핵심 원료인 콩을 100% 국산 검은콩으로 만든 두유다.

새롭게 선보이는 ‘바른두유 검은콩 고칼슘’은 파스퇴르의 간간한 품질 기



준과 기술력으로 만들었다. 검은콩을 통째로 갈아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다. 여기에 두유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강화해 190mg 1한 팩에 칼슘 210mg을 함유하고 있어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